

한 국 사

문 1. 다음의 강령을 내세운 이들의 행보가 아닌 것은?

<농민군 4대 강령>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2.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쫓아 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4.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 대한계년사 —

- ① 탐관오리의 제거, 조세 수탈의 시정 등을 주장하였다.
- ② 초기의 교조신원운동이 점차 지방관의 횡포에 저항하는 보국 안민의 항쟁으로 바뀌어 갔다.
- ③ 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청춘과부의 재가를 허락하는 등 반봉건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 ④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조세 금납화 등을 요구하였다.

문 2. 8·15 광복 이후 여러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② 송진우, 김성수 등의 민족주의 우파계열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대하였다.
- ③ 좌익의 여운형과 우익의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추진하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내놓았다.
- ④ 이승만이 조직한 한국민주당은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우익 진영의 대표정당으로 성장하였다.

문 3.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① (가)와 (나)를 비롯한 고려의 탑은 높이가 높아지면서 신라탑보다 균형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② (가)는 송나라의 영향을, (나)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다.
- ③ (나)의 양식은 조선 세종 때 세워진 원각사 10층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 ④ (가), (나)와는 달리 현화사 7층석탑은 고려의 독특한 형태이다.

문 4. 다음 글에 해당되는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庚癸) 이후 공경대부는 천예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장군이냐 재상이 되는 씨가 어디 따로 있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어찌 상전의 매질을 받으며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인의 호적을 불살라 버려 삼한 땅에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과 장상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려사 —

- ① 민중은 옛 삼국의 부흥을 표방하면서 봉기하기도 하였다.
- ② 정부는 하층민을 무마하기 위해 신분을 상승시켜 주기도 하였다.
- ③ 천민들은 대몽항쟁기에 저항세력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 ④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찰리변위도감을 설치하였다.

문 5.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 ① (나) 시기의 지배자는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중국의 연(燕)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 ② (가) 시기의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의 움집에서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였다.
- ③ (가)는 대체로 요하 일대, 요동반도 그리고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발견되며 후기 고조선의 대표적 유물이다.
- ④ (나)는 독자적 양식으로 옛 마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청동제농기구와 함께 발견되고 있다.

문 6. 조선 후기 경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앙법의 전개로 농민들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 ② 광산 경영 전문가인 덕대는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 받았다.
- ③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면서,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 ④ 민간 수공업자들은 선대제적인 생산방식으로 상업자본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문 7. 일제하 총독부 관리였던 와다 이치로(和田一郎)는 『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라는 책의 저술을 통해 조선의 토지제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와다 이치로(和田一郎)는 토지조사사업의 담당 관리로, 토지국유론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저술하였다.
- ② 고려 전시과의 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지급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환된다고 보았다.
- ③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정하여 수조권, 가격 그리고 지적(地籍)을 정확히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다.
- ④ 신라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는 수조권의 지급이며, 농민에게 지급한 정전(丁田)은 경작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문 8. 다음 그림의 도자기는 특정 시기에 주로 생산된 양식으로 작품성이 매우 뛰어났다. 그 생산된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국초기 독자적인 연호(年號)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② 『주자가례』에 의해 집에 가묘(家廟)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 ③ 인재 양성을 위해 양현고(養賢庫)라는 일종의 장학재단을 설치하였다.
- ④ 서울의 중인들은 통청운동(通淸運動)을 벌이기도 하였다.

문 9. 다음 글은 우리나라 전근대사회 결혼풍습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의 시기에 나타난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풍습이 있었다.

(나)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여 이를 금하였으나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 _____

(라)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어 혼인 후 주로 남자 집에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다.

- ① 제사는 계층에 따라 봉사(奉祀)의 범위를 3대·2대·부모제사로 지낼 것을 법제화하였다.
- ② 여자가 친정으로부터 가져온 재산의 처분권은 남편에게 있었다.
- ③ 제사는 윤희봉사, 분할봉사 그리고 외손봉사가 행해졌다.
- ④ 혼인은 법적으로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이면 가능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 10. 조선후기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을 정리하였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묶은 것은?

17세기 후반 『반계수록』을 저술한 유형원은 (㉠)을 내세워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고, 18세기 전반 이익은 (㉡)을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제창하였으며, 『여유당전서』로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은 (㉢)을 내세웠다.

⑦

④

Ⓢ

- | | | |
|-------|-----|-----|
| ① 균전론 | 한전론 | 여전론 |
| ② 균전론 | 여전론 | 정전론 |
| ③ 여전론 | 정전론 | 균전론 |
| ④ 정전론 | 한전론 | 여전론 |

문 11. 다음은 조선전기 농업기술을 서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이루어지고, 논농사에서는 이앙법도 가능해졌다.

나. 시비법이 발달하여 인분과 재를 사용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㉔. 지방의 사림들이 중국의 강남농법을 받아들여 수전 농업을 더욱 발전시켰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neg, \perp, \sqsubset

문 12. 다음 자료가 보여주는 시대의 정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 삼국지 —

(나) 호암사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자 3~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뒤에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정사암(政事巖)이라 하였다. — 삼국유사 —

— 삼국유사 —

(다)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의를 따른다. 이를 화백(和百)이라 부른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였다. — 신당서 —

— 신탄서 —

- ① (가), (나), (다)의 회의는 부(部)대표자회의에 뿌리를 둔 것이다.
- ② (나), (다)의 회의는 고구려의 대대로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 ③ (가) 단계의 대표자들은 나라 안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나라를 스스로 수호했던 전사집단이었다.
- ④ (가), (나), (다)의 회의는 이후 고려, 조선시대의 정치운영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문 1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의전 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좌율을 적용하면 상인들은 곧 물종을 화매(和賣)하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 정조실록 —

면포 상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통공발매의 효과라 했습니다. 작년 겨울 한양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정원일기 -

- 승정원일기 -

- ① 시전상인의 침탈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
- ② 육주비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 ③ 서울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해지고, 물가양등도 막을 수 있었다.
- ④ 금난전권 철폐로 인해 사상 도고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문 14. 다음 글은 특정 시기에 유행했던 불교종파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종파가 성립된 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一) 안에 일체(一切)요, 다(多) 안에 일(一)이다.
일(一)이 곧 일체(一切)요, 다(多)가 곧 일(一)이다.
한 작은 티끌 속에十方(十方)을 머금고,
일체(一切)의 티끌 속에 또한 이와 같다.
무량(無量)한 먼 겁(劫)이 곧 한 찰나(刹那)요,
한 찰나(刹那)가 곧 그냥 무량(無量)한 겁(劫)이다.

— <보 기> —

- ㄱ. 황룡사의 건립
- ㄴ. 정토 신앙의 유행
- ㄷ. 강수(强首)의 외교문서 작성
- ㄹ. 고달사(高達寺) 원종대사(元宗大師) 혜진탑비(慧眞塔碑)의 건립
- ㅁ. 봉평비(鳳坪碑)의 건립

- ① ㄷ, ㄹ
- ② ㄴ,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문 15. 조선시대 사림의 등장으로 나타난 정치적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 ② 전랑과 삼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 ③ 과거제를 폐지하고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 ④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면서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문 16. 다음 글은 『안동권씨 성화보』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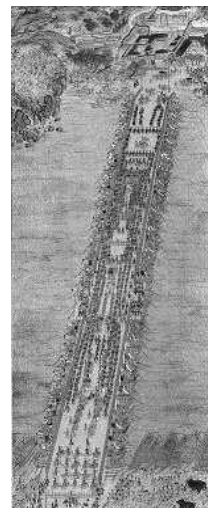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건대 옛날에는 종법이 있어 대수(代數)의 차례가 잡히고, 적자와 서자의 자손이 구별지어져 영원히 알 수 있었다. 종법이 없어지고는 족보가 생겨났는데, 무릇 족보를 만들에 있어 반드시 그 근본을 거슬러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따지고,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 그 계통을 밝히고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구별하게 된다.

- ① 이를 통해 향촌 자치를 구현하고 일반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② 가문의 내력을 기록하여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③ 혼인상대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④ 안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 다른 집안이나 하급 신분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문 17. 한국 고대사회에서 해상을 통한 원거리 교역이 빈번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거리 교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 ② 4세기 초엽 낙랑·대방의 축출로 인해 중국-삼한-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되었다.
- ③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은 전남 해안지역을 정복하고 동진-백제-임나가라-왜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장악하였다.
- ④ 9세기 초엽 일본정부는 북부 큐우슈우에 온 신라 상인의 무역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규정과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문 18. 다음 그림은 화성능행 중 노량진에 배다리를 놓고 건너는 장면을 그린 『한강주교도』이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정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봉당의 주장이 옳고 그른 지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 ②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한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③ 서인과 남인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 ④ 정치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는 없어지고, 중앙정치를 주도하던 정치집단은 소수의 가문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문 19. 일제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 ② 1920년대 후반 폭력투쟁을 벌여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고취하였던 대표적 인물은 이봉창과 윤봉길이었다.
- ③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는 일부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군과 연합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항일 유격활동을 하였다.
- ④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정부와 미국의 지원 하에 활동하였다.

문 20. 다음은 남북 간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내용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ㄱ.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 ㄴ. 금강산관광 개시
- ㄷ.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 ㄹ.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향 방문단의 서울과 평양 각각 방문

- ① ㄹ-ㄷ-ㄴ-ㄱ
- ② ㄹ-ㄴ-ㄷ-ㄱ
- ③ ㄷ-ㄹ-ㄱ-ㄴ
- ④ ㄴ-ㄷ-ㄹ-ㄱ